

이윤이 《내담자》: 절반의 기능

Client by Yi Yunyi: The function of the half

1

두 동강 난 형상들. 본래의 기능을 배반하는 사물들. 《내담자》 전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이러테면 기둥. 그것은 건축적 용도에 의해, 상부의 하중을 지탱하는 수직재로 정의된다. 지면으로부터 천정을 잇는 수직력은 기둥을 기둥일 수 있게 하는 핵심이다. 《내담자》에서 아트선재센터 로비의 원형 기둥을 모방한 오브제들은 지면과 천정 중 어느 한 쪽에만 맞닿은 상태로, 즉 원기둥의 상단부나 하단부가 싹둑 잘려나간 채, 무용하게 안개를 내뿜거나 덩그러니 허공에 매달려 있다. 천정의 하중 지탱이라는 기능이 결여된 이것을 기둥이라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온전한 기둥이 아니라면 하다못해 ‘절반의 기둥’이기는 할까.

무언가의 절반이 잘려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두 동강이 난 이 거짓 기둥들에 작가가 부여한 이름은 흥미롭게도 〈귀의 말〉이다. 귀의 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청력기관인 귀가 수용하여 신체 내부로 전달하는 외부의 말일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조음기관이 결여된 귀가 내뿜는 내부의 말일 수 있다. 말하자면, 청력이라는 기능에 얽매이지 않을 때 도리어 그것은 말하기 시작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귀의 말〉이 ‘귀’와도, ‘말’과도, 형상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이윤이는 형상과 기능을 분리하거나 형상에 의문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으로 유도한다. 작가가 형상과 기능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귀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또 다른 오브제의 제목이 〈기능하는 사람〉인 데서도 확인된다. 이것은 반사판 한 귀통이를 반쯤 접어 세운 것으로, 그 어떤 유용하거나 식별가능한 기능도 없이, 그저 뱅글뱅글 회전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반사판은 곳곳에, 어떤 경우 모퉁이 바닥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름도, 역할도 없이.)

이윤이 작품에서 어떤 결핍은 단순히 결핍을 채워줄 다른 반쪽으로 나아간다고보다, 그 자체로 결정되지 않은 변환과 증식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이 ‘절반’의 것들은 종종 쌍을 이루고 있고 일종의 거울상처럼 서로를 반영하고 있어서, 가령, 우리는 두 개의 〈귀의 말〉이 합쳐져 하나의 기둥이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는 불완전한 파편에 불과하지 않다. 절반과 절반이 결합되어 비로소 온전한 하나로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도처에 명백하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핵심일 것이다. ‘절반’은 단순히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예비한다. ‘절반’은 ‘하나’보다 이미 ‘둘’에 가까우며, 그렇게 얼마든지 몇 배수로 증식할 것이다. ‘반’의 거울상은 ‘둘’이다.

1

Forms split in two; Objects as traitors to their original function: These are what constitute the exhibition space in *Client*.

Take the pillar for example. For architectural purpose, it's defined as a vertical member that supports an upper weight. The vertical force that connects the ground to the ceiling is what makes the pillar a pillar. In *Client*, the objects that mimic the circular pillars in the lobby of Art Sonje Center needlessly give off fog or are bluntly hung in space, touching upon just either floor or ceiling, with the top half or the bottom half of the pillar severed. Lacking the ability to support the weight of the ceiling, can this still be called a pillar? If it's not a whole pillar, can it at least be 'half a pillar'?

What happens when half of something is cut off? Interestingly, the artist calls these fake pillars split in two, *Words of the Ear*. What is meant by 'words of the ear'? It would first of all allude to the external words that are delivered to the inner body through the hearing organ of the ear. But it can also be the internal words spat out by the ear that lacks articulators. In other words, when one doesn't depend on the function of hearing, it may just start talking. What's noteworthy is that *Words of the Ear* is not figuratively relevant to 'ear' nor 'words'. Yi separates the form from function, or questions the form, and leads it to have a new function. The fact that the artist concentrates on the problems of form and function is also verified by another object, titled *Functioning Person*, which rather does resemble the shape of the ear in a way. A reflector twisted in half and held up, it's devoid of any identifiable or useful function and just merely rotates in one spot (Other reflectors are placed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sometimes on the floor, without a title nor function.)

In Yi's work, a certain lack proves the possibility of transformation and multiplication that's not determined by itself, rather than merely seeking for the other half that would fill its lack. As these 'halves' often make a pair and reflect each other like

(따라서, 지난 번 개인전 《두 번 반 매어진》[2014]의 의미심장한 제목은 이번에도, 가령 매듭의 위치를 바꾸면, 유효하다.) (덧붙이자면, 당시 전시작 중 〈Meet me at the Eagle〉의 한 설치물이었던 두 동강 난 하모니엄은, 단순히 온전한 악기로 복구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문이라는 위치 및 시점 변환의 새로운 기능으로 거듭난다.)

2

절반으로 잘려나간 존재가 두 배로,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은 《내담자》의 영상 작품 〈샤인 힐〉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작품은 기이한 인연을 이어가는 두 여성, 본향과 승연의 이야기를 다룬다. 도입부부터 두 사람은 마치 거울상처럼 보여지도록 유도된다. 하나의 벽을 마주한 각각의 방에서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절 수행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배경에서 속삭이는 노랫말처럼, 몸을 바꿔 태어나도 무방해 보인다. 이어지는 장면이 흥미롭다. 처음 만나게 되기 전 꿈에서 승연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다고 말하는 인터뷰에서 본향은 묘하게도 꿈 속의 얼굴이 반쯤 가려진 채, 즉 눈은 안 보이고 코와 턱 부분만 보이는 상태였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승연측으로 넘어간 인터뷰 화면은 그림을 그리는 승연의 반쯤 가려진 얼굴, 그러나 이번엔 눈만 드러나고 코와 턱 부분이 가려진 모습을 보여준다.

절반만 공개된 얼굴. 이것은 얼굴의 아래쪽과 위쪽을 단순히 이어붙이기 위한 퍼즐이 아니다. 퍼즐에는 딱 맞아야 할 짝패와 제자리가 정해져 있지만, 〈샤인 힐〉에서 그 후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반쯤 가려진 얼굴들은 두 사람의 필연적 인연만큼이나 어찌면 대체가능성과 확장가능성을 암시한다. 본향은 꿈 속에서 수행법을 설명하는 중에도 인물의 아랫부분만 그렸던 것에 대해, 나머지는 승연이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본향이 예지했던 ‘절반’의 목적은, 승연이라는 존재가 가진 단일하지 않은 정체성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처음 동등해 보던 승연과 본향의 절반씩의 무게축이 일순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엉뚱하게도 승연과 가족의 전생 얘기로 흘러가는 것은 나름의 일관성을 갖는다.

전생 에피소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승연이 인도 어느 왕국의 공주였고 승연의 어머니와 언니와의 사이는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따위의 세세한 관계도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현재의 나는 기껏해야 ‘절반’쯤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절반으로부터 그 나머를 만들어나가는 일이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이야기의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이야기는 우리를 우리로 인식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아닌 것이 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의 형태로 존재하며, 따라서 감춰둔 나의 이야기를

a kind of a mirror image, we might imagine the two *Words of the Ear* coming together to form one single pillar. However, they are more than just incomplete fragments waiting to become one. Half and half don’t come together to finally create a whole to fulfill its original function, and this, clearly evident throughout the exhibition, might be the very point: ‘Half’ doesn’t simply aim at ‘one’, but prepares for ‘two’. ‘Half’ is already closer to ‘two’ more so than it is to ‘one’, and will multiply many times over. The mirror image of ‘half’ is ‘two’.

(Therefore, the significant title of Yi’s last solo exhibition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 (2014) could be valid again this time, granted that the positions of the knots change.) (To add to this, the harmonium split in two installed in the work *Meet me at the Eagle* shown in that exhibition, does not simply desire to be restored into a complete instrument, but is reinvented to have a new function as the transition in its position and viewpoint of a revolving door.)

2

The half expanding double or more also applies to the video *Shine Hill* in *Client*. This video tells the story about a strange connection between two women, Bonhyang and SeungYeon. From the beginning of the video, the two are induced to look like a mirror image. Dressed in the same clothes, and engaged in the same bowing gestures in two different rooms separated by a wall, the two figures could have been born in each other’s bodies as sung in the background. Next scene is quite interesting; In the interview where Bonhyang talks about having met someone presumed to be SeungYeon in a dream, Bonhyang says that SeungYeon had half of her face covered, with just her nose and chin visible. The interview then captures SeungYeon painting, this time with her nose and chin covered and only eyes visible.

The face, only half visible, is not just a puzzle that simply connects the top part of the face with the bottom part. While the pieces have their own fitting place on the puzzle, the half-covered faces that repeatedly appear in *Shine Hill* suggest no less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and expansion than

외부로 끄집어내는 일, 잠재된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 말하자면, ‘귀의 말’을 주고 받는 일은 삶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방식이다. 그렇게, (상담 고객으로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러 오는) ‘내담자來談者’는 (서로의 내밀한 심장을 열어 보이는) ‘내담자內談者’로 치환된다.

3

‘내담자’의 전환이 발생하는 ‘샤인힐’은 이상한 무대이다. 그것은 승연의 가족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으로, 언젠가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다툼이 발생할지 모를 장소이다. 하지만 정작 이 곳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승연의 친구 본향이 유일하다. 그가 일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승연과 함께 있을 때인데, 여기서 이 명백히 계급적 관계는 몽환적이고 달콤한 노래와 함께 ‘연기처럼’(말하자면, 카메라에 우연히 포착된 실제 화재 경보 장면과 무관하지 않은 채) 사라지고, 그렇게 둘이 함께 걸어가는, 때로 손을 잡아당겨 끌어주는 그 가짜 풀밭은 일순, 반짝, ‘빛나는 언덕’이 된다.

이를테면 ‘샤인힐’은 골프연습장과 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그 진정한 이름의 의미를 되찾는다. 그리고 본향과 승연이 전생 이야기에 맞춰 짐짓 ‘연극’을 시행하던 진짜 풀밭의 작은 둔덕과 공명하며, ‘절반’의 언덕들이 빛나게 되는 조건을 상기시킨다. 결국, 작가의 전작을 빌어 표현하자면, ‘마야Maya’, 곧 ‘우리가 아는 그것이 아닐’ 때.

‘그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으로 추정되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믿음과 부정의 결속, 곧 환영의 체계는 사실 영화 역사를 이뤘은 토대이기도 하다. 영화들은 대개 이 환영의 체제에 기대어 존립해 왔으며, 때때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폭로하는 시도들이 존재해왔다. 이윤이는 어떠한가. 그는 종종 이러한 환영을 순전한 환영 자체로서 구축한다. 그의 영상 작품 속 많은 인물들은 어떤 고통스런 상황에 빠져 있으며, 그들은 이 감정을 굳이 ‘(재)무대’화한다. 그렇게 환영임을 고백하는 퍼포먼스가 개입되고, 감정을 부추기는 노래로 이 고백을 강조함으로써, 이 거짓 믿음으로부터 진짜(에 가까운 무엇)이 출현하기를 소망한다. 가령, 전작 〈Wetland, Greencard, Trio〉(2012)에서 사슴으로 분장한 작가가 깊은 어둠 속 도시의 수풀을 헤맬 때 흘러나오는 가스펠 송 ‘As the Deer’는 이 견잡을 수 없는 감정의 실체를 고통스럽게 목도하도록 만든다.

〈샤인 힐〉은 이러한 작가의 궤도에서 머물면서, 이를 더욱 대담하게 비틀어 강화시킨다. 예컨대, 그러나 또한 요컨대, 〈샤인 힐〉은 영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영상 작품 〈샤인 힐〉의 가짜

their inevitable tie. Concerning how she painted just the bottom part of the figure when explaining Buddhist practice in the dream, Bonhyang says that SeungYeon would fill the rest. The witnessing of ‘half’ as foreseen by Bonhyang leads to a non-singular identity of SeungYeon’s existence. Therefore, it still has certain consistency when the axis of weight between SeungYeon and Bonhyang, which seemed equal at first, suddenly leans over to one side, and the story takes a turn to SeungYeon and her family’s past life.

What’s important in the episode about the past life are not details such as what kingdom in India SeungYeon was a princess of, an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SeungYeon’s mom and her sister switched. Rather, what we must focus on are implications that our identity is not fixed, and that the self in the present is just ‘half’ at best and thus what must be created is beyond the present ‘half’. Most importantly, this episode is significant in that this process of making such identity takes the form of a storytelling. The storytelling makes us recognize ourselves as us, and allows us to become what is not us. Our life exists in the form of story. Therefore, bringing out one’s hidden story, listening carefully to the latent story from others, or giving and receiving ‘words of the ear’ so to speak, is an important way of expanding life. And this is how ‘the client’ (as a customer engaged in one-sided communication) is transposed into ‘the intimate’ (who opens up the innermost souls of each other).

3

‘Shine Hill’, where the transformation of ‘client’ occurs, is a strange stage. A golf practice range run by SeungYeon’s family, it’s somewhere a family dispute regarding its management rights might take place some day. However, the only person seen working here is SeungYeon’s friend, Bonhyang. We find Bonhyang not working only when she is with SeungYeon. Here, the clear class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nishes like ‘smoke’ (that is, not irrelevant to the actual fire alarm scene captured by the camera by chance) with the sweet dreamy song, and the fake grass hill on which they walk together,

언덕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전시장 바닥에도 솟아 있다. 어둠에 묻힌 그 언덕 역시 〈샤인 힐〉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영상 〈샤인 힐〉은 그 자체로 자족적이지 않다. 혹은, 그 자체로 자족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실을 망각할 때이다. 영상 〈샤인 힐〉은 이미 현실 속 무언가의 거울상일 뿐 아니라, 그것의 또 다른 거울상을 영상 바깥 전시 공간에 되돌려놓는다. ‘절반’의 영상. 또 다른 ‘절반’의 설치. 그렇게 둘 이상, 몇 배로 불어나는 언덕들.

어둠의 샤인힐들이 빛난다. 그것들이 빛나는 것은 그것들이 고작해야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아주 일부는, 전시장 한켠에 덩그러니 놓인 반사판 덕분일 수도 있다. 여하튼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혜진
비평가

leading each other by the hand at times, becomes, in an instant, in a flash, a ‘shining hill’.

‘Shine Hill’, as it were, reclaims the true meaning of its name when it loses its function as a golf practice range and workplace. It resonates with the patch of real grass on which the ‘theater’ takes place when Bonhyang and SeungYeon reenact past life, and reminds us of the condition on which ‘half’ hills shine. After all, to borrow the title of Yi’s previous work, it’s *‘Maya’ (not that we know)*.

In order for it to be ‘not that’, it requires the premise of what is considered ‘that’. The solidarity of such faith and denial, or the system of illusion, is the foundation on which the history of film is built. Films have usually depended on this system of illusion, and there have been attempts to destroy or expose it. How about Yi’s work regarding this? Yi sometimes constructs such illusion as pure illusion itself. Many figures in her video are involved in certain painful situations, and they obstinately ‘(re)stage’ such emotions. By introducing a performance that confesses to its illusion, and by emphasizing this confession through a song that instigates sentiment, the work hopes for (something close to) the truth to surface from this false belief. For example, when the artist, dressed up as a deer, desperately searches through the woods in the city at night in her previous video, *Wetland, Greencard, Trio* (2012), the gospel song ‘As the Deer’ heard in the background makes us a painful witness to this uncontrollable sentiment.

Shine Hill is on the same trajectory, while taking an even bolder and stronger twist. For instance, and in short, *Shine Hill* is not composed of just a video. The fake hill in *Shine Hill* is mounted on the floor of the exhibition space where the video is screened. Buried in darkness, the hill is also a part of *Shine Hill*. Therefore, the video *Shine Hill* is not self-contained. It may be self-contained in itself only when the truth is forgotten. Not only is the video *Shine Hill* already a mirror image of something in reality, but it also turns back another mirror image to the exhibition space from the video. The ‘half’ video, the ‘half’ installation; So the hills multiply two times or more.

The shine hills of darkness shine, and they do so only because they’re nothing more than ‘halves’. This might be due to the reflectors placed in a corner of the space. It’s because it’s ‘not that’ you think, after all.

Haejin PAHNG
Art critic
(Translated by Sunhye Hwang, Art Concept)